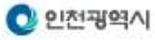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2025년 <b>수도권매립지 종료</b> 
	배포일자	2021년 5월 25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복지정책팀장 이순구 ☎440-2911 • 담당자 조귀환 ☎440-2912
<b>사진</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복지기준선 실행과제 점검 본격 시행**  
- 5.10일 시민 이행평가단 첫 회의, 5개 분과별 추진방안 논의 -  
- 118개 실행과제 지속 점검 및 정책 제언 통해 실행력과 실효성 제고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 모니터링단인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이행평가단’ 이 인천복지기준선의 118개 실행과제 점검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5대 영역 별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38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118개 실행과제를 민·관·학 협력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올해는 ‘인천복지기준선’의 구체적인 시행 원년으로 지난 4월 1일 인천 복지기준선에 참여한 위원·연구진·시민평가단 등 다양한 분야의 18명의 전문가를 ‘시민 이행평가단’으로 위촉하고, 연차별 복지기준선 실행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이행평가단은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 분과별 중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분과회의를 마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금년 10월까지 인천복지기준선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 내부에 조직된 인천복지기준선 실행지원 태스크포스(TF팀)의 이행정도를 토론·평가해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역할도 한다.

앞으로, 인천시와 시민 이행평가단은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통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5개 영역의 118개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이행평가단의 점검에 따른 제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복지기준선 실행과제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118개의 실행과제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복지기준선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따라 더욱 두터운 사회적 안정망이 요구됨에 따라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시정전략 중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과제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분야의 118개 실행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인천복지기준선 시민평가 모니터링단 위촉식, 2021.4.1 (목)>



박남춘 시장이 1일 남동구 샬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시민평가 모니터링단 위촉식'에서 모니터링단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